



기성용

훌쩍 큰 KI ‘우상’을 넘다

스완지시티, 리버풀 3-1 꺾고
 잉글랜드 캐피털원컵 8강 진출
 기성용 풀타임 출전 맹활약
 공·수에서 ‘우상’ 제라드 압도

광주출신 기성용이 풀타임 활약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가 강호 리버풀을 제압하고 2012 캐피털원컵 8강에 진출했다.

스완지시티는 1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 경기장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캐피털원컵 4라운드(16강) 원정 경기에서 전반 34분 호세 치코의 선제골과 후반 32분 네이션 다이어의 결승골, 후반 추가시간 터진 조너선 데 구즈만의 추가골로 3-1로 이겼다.

기성용은 정규리그와 리그컵을 합쳐 7경기 연속 중앙 미드필더로 풀타임 출전, 공수 조율 임무를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팀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1차 저지션 역할을 수행하면서 날카로운 패스로 동료의 공격 기회를 열어주는 한편 전반 19분과 전반 33분에는 위협적인 중거리슛을 시도하는 등 공수 양면에서 활약했다.

기성용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제라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유명한 선수였고 내 우상이었다. 세계적인 선수를 상대로 플레이를 하게 돼 좋은 경험이었다. 리버풀 같은 팀을 이겼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의미가 있다. 우리가 비록 작은 팀이지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어 자랑스럽다. 앞으로 더 좋은 선수와 경기하며 더 발전할 것이다”며 기뻐했다.

기성용은 세계적인 축구 네트워크 ‘골닷컴’에서 팬들이 뽑은 ‘MOM’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첼시는 안방에서 치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의 스티븐 제라드

(맨유)와의 16강전에서 난타전 끝에 5-4로 승리했다. 후반 추가시간까지 2-3으로 뒤지다 에당 아자르의 페널티킥 동점골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간 첼시는 연장 전반 7분 대니얼 스터리지와 연장 후반 11분 하미레스의 연속 골로 승리를 안았다.

맨유는 연장 후반 추가시간 라이언 깁스의 페널티킥 골로 마지막까지 추격을 시도했지만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이밖에 노리치시티는 토트넘 홋스퍼를 2-1로 꺾고 8강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조중연 떠난 축구협회 차기 회장 누가될까?



정몽규 총재

허승표 회장

조중연 축구협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 불출마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설 후보군에 대한 축구인과 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권오갑 실업축구연맹회장, 정몽규 프로축구연맹 총재, 김석한 중등축구연맹 회장, 허승표 퍼블릭스 회장, 안종복 전 인천유나이티드 사장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를 놓고 축구계 내부에서도 차기 회장 후보를 놓고 다양한 루머가 떠돌고 있다.

‘짧고 참신한’ 이미지라면 정몽규 프로연맹 총재로 좁혀진다.

정 총재는 지난해부터 프로연맹을 맡아 승강제와 선수 연봉 공개 추진 등 기존 집행부들이 제대로 시도하지 못한 사업을 펼쳐 추진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에 취임해 임기(3년)를 1년 이상 남겨놓은 데다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회장의 사촌 동생이어서 ‘현대가(家)’가 축구협회장직을 독점한다는 시선이 부담스럽다.

이에 맞서는 허승표 퍼블릭스 회장은 꾸준한 축구계의 ‘야권’으로 목소리를 내왔다는 게 장점이다. 축구협회장 경선에 세 번째 도전장을 앞둔 허 회장의 야권계통은 선거철에만 모습을 드러내 왔다는 점이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말에 치러지며 후보등록은 선거일 2주 전에 마쳐야 한다. /연합뉴스

광주 FC, 강원을 잡아야 산다

K리그 11일 광주 경기

‘강등 탈출’ 벼랑끝 대결

위기의 광주가 운명을 건 2주일을 보내고 있다.

바람이 한층 매서워진 1일 오전 월드컵 보조 구장에서는 광주 FC 선수단의 체력 훈련이 진행됐다.

강등 위기 속 진행된 강도 높은 훈련이었지만 선수단은 밝은 표정으로 경기장을 누비며 전력으로 뛰고 또 뛰었다.

광주는 전반기 극적인 승부를 펼쳐며 상위권에 포진하기도 했지만 뒷심 부족으로 그룹 B에서 스플릿 시스템 일정을 시작했다.

상주를 제외한 강등 한 팀을 놓고 벌여지고 있는 생존 경쟁, 광주는 스플릿 시스템이 시작된 이후 7경기에서 1승3무3패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거둔 1승도 상주의 보이콧으로 얻은 몰수승이었다.

전반전 우위를 점했던 성남과 인천과의

경기에서 연달아 2-3 역전패를 당하면서 결국 그룹 B 최하위까지 내려앉았다.

최만희 감독은 당초 지난 인천과의 37라운드 경기까지만 쉬는 선수들에게 달콤한 휴가를 선물할 계획이었다. 38라운드 경기 상대가 상주인만큼 한 주의 공백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광주는 인천전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며 승점 3점을 날렸다. 최 감독의 불호령과 함께 휴가 계획도 백지화 됐다.

최 감독은 “지난해와 달리 올 시즌에는 선수들이 생각이 많다. 팀만 생각해서 뛰는 게 아니라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생각도 많다. 2년차 징크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이번 주 경기가 없는 만큼 훈련 강도를 높였다. 2일에도 오전·오후 훈련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벼랑 끝까지 몰린 만큼 선수단은 훈련으로 위기 탈출을 노리고 있다. 경기를 한 주 전인 광주는 오는 11일 강원과 홈에서 만난다. 강등후보끼리 만나는 그룹 B의 빅 매치다.

강원원전을 위한 남은 시간, 최 감독의 최대 고민은 역시 수비 조합이다.

최 감독은 “박기동의 움직임이 좋고, 김동섭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 박정민이 그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 등 공격은 큰 문제가 없다. 수비 조합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용이 중앙에서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좌우가 고민이다. 박병주·허재원의 유출로 수비층이 얇아지면서 경고 누적 등으로 선수들이 출장을 하지 못할 경우 임시 방편 식으로 수비진을 꾸려야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프로 2년차의 주전들로 꾸려진 광주는 위기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며 최하위까지 밀려나고 말았다. 경험 부족을 메우기 위한 패기가 절실한 시점이다.

최 감독은 “이기는 것밖에 답이 없다. 선수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다. 젊은 선수들만큼 잘 다독여서 남은 경기에 대비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진행된 체력 훈련에서 광주 FC의 ‘장신군단’ 박기동(왼쪽부터·191cm), 유종현(196cm), 복이(201cm)가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

K리그 신인 드래프트

12월 10일로 늦춰

K리그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 개최일이 12월4일에서 12월10일로 늦춰졌다.

프로축구연맹은 “2부리그 참가를 원하는 부천FC1995에 대한 시의회의 지원 조례안 통과 등 일정 문제로 드래프트를 다음달 10일로 연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류 접수, 명단 공시일 등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 관련 일정들도 조정됐다. 드래프트 참가를 원하는 선수는 프로축구연맹 공식 홈페이지(www.kleague.com)에서 참가 희망서를 다운받아 구비 서류와 함께 오는 22일까지 연맹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참가 명단은 11월 29일 공시된다.

내셔널리그 승격팀을 제외하고 내년 시즌 새로 창단하는 구단의 우선 지명 선수는 내달 7일 발표된다.

한편 2013 K리그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는 1부 리그 구단이 1순위, 2부 리그 구단이 2순위를 지명하고, 3순위부터는 1·2부 팀 혼합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대로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78만원

4인셋 98만원

4인셋 175만원

2+2 98만원

홍스페이스

www.hong79.com(홍천구닷컴)

NAVER **홍스페이스** 검색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장동도터리) 가구빌딩 450평 ☎1899-0240